

일반인의 세월호 참사 간접 경험으로 인한 신념체계와 안녕감 간 관계에서 집단역량 인식의 매개효과: 종단연구*

이 나 빈 주 혜 선 안 현 의†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신념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건에 대한 신념이 장기적으로 개인의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 그 과정을 집단역량 인식 수준이 매개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20대에서 60대의 성인을 대상으로 21개월의 간격으로 총 2회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였으며 1차와 2차 설문에 모두 응답한 이들 중에서 세월호 사건 생존자, 목격자, 가까운이가 생존했거나 희생되었다고 응답하거나 현장목격 및 현장직무수행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이들을 제외한 간접경험자 중에서도 세월호로 인해 현재 신념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이들 307명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모형 검증 결과, 1차시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 모형의 경우, 1차시 무의미감과 2차시 안녕감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1, 2차시 집단역량 인식 변인이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1차시 세상에 대한 비우호성과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 모형의 경우, 1차시의 비우호성 수준이 2차시 안녕감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1,2차시 집단역량 인식 수준을 통한 간접경로 모두 유의했다. 또한, 과거 외상경험여부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과거외상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로는 없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한 제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세월호 참사, 일반 시민, 세상에 대한 신념, 집단역량 인식, 안녕감, 매개효과, 종단연구.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3A2038236).

† 교신저자: 안현의,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Tel: 02-3277-2643, E-mail: Ahn12@ewha.ac.kr

재난은 동시대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서, 사건에 간접적으로 노출된 반 시민들 역시 상당한 수준의 충격을 경험할 수 있다.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참사 직후 시민들은 위기 대응에 한계를 드러낸 정부와 사회체계에 대한 불신과 분노, 상황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감과 우울, 나도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경험했으며, 이러한 집단적 반응은 집단 트라우마, 집단 우울증 등으로 명명되기도 했다 (YTN. 2014.05.05. “세월호 참사 ‘집단 트라우마’ 어떻게 막을까?”; 중앙일보. 2014.04.30. “{세월호 참사} ‘집단 우울증’ 극복 어떻게.. 일상 복귀 노력해야”; 한겨레. 2014.04.21. “대형참사 트라우마로 가득찬 거대 병동, ‘한국호’”). 본 연구는 시민들이 경험한 이러한 반응들 중에서도 신념 체계의 변화에 관심을 두었다. 세월호 참사가 일반 시민들의 신념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세월호 참사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규정되고 인식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동시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재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기 상황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 사회의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직접적으로 반영되며,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재난대응체계 특성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므로 (Bandura, 1997), 현재 한국 사회의 재난대응체계가 가진 특성을 이해하고, 그 한계를 수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시민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신념의 내용은 ‘세상에 대한 우호성과 의미감, 자기에 대한 가치감’의 세 가지로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세상에 대한 우호성 (benevolence of world)’은 사람들이 세상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여기는 정도, 세상에는 부정적

이고 나쁜 사건에 반대하는 선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Janoff-Bulman, 1989). 이 신념은 두 가지 가설로 이루어져있는데, 비인격적인 세상에 대한 우호와 사람들에 대한 우호성이 그것이다. 전자는 세상은 불행이 드물게 일어나는 선한 곳이라는 믿음, 후자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친절하고, 도움을 주며, 타인을 잘 돌본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기본신념은 ‘세상에 대한 의미감 (meaningfulness of the world)’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정도에 대한 믿음이라 할 수 있다 (Janoff-Bulman, 1989). 이는 어떤 일이 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신념, 특히 왜 하필 그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에 대한 신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기본신념은 세 가지 구체적인 가설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은 그들이 받을만한 것을 얻는다는 ‘정의의 원리’, 사람들은 적절한 사전 행동을 함으로써 사건의 결과를 통제 할 수 있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통제 (controllability)의 원리’, 마지막은 ‘무작위성 (randomness)의 원리’로써, 이는 세상은 우연의 원칙에 따라 돌아간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에 대한 가치감 (worthiness of the self)’으로, 스스로가 가치와 능력이 있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자기 가치’, 스스로를 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는 ‘자기-통제감’, 행운 또는 불운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정도인 ‘운 (luck)’의 세 가지 하위가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 신념체계는 외상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변화가 뒤따른다 (Janoff-Bulman, 1989, 1992; Mikkelsen, 2001; Solomon, Iancu, & Tyano, 1997).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게 된 개인은 기존의 신념체계를 바탕으로 사건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지만, 기존의 도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고 사건 경험과 기존 신념체계와의 불일치를 겪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 외상과 관련된 정보와 기존의 인지도식 간에 발생한 불일치는 인지적 부조화로 이어지고, 결

과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효과적인 가설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압력을 경험한다. 이러한 압력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이 경험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끊임없이 반추하도록 촉구하면서 결과적으로 기존의 신념체계를 수정하고, 새로운 의미구조로 신념체계를 재구성하도록 만든다. 물론 새롭게 구성된 신념체계가 외상 후 성장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만 (Park, 2010; Triplett, Tedeschi, Cann, , Calhoun, & Reeve, 2012),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며 (Gutierrez, & Park, 2015), 대부분의 외상적 사건들은 정의롭고 도덕적인 세상에 대한 신념에 상처를 입힌다. 이와 같은 손상(moral injury)은 기존신념과의 불일치로 인한 스트레스를 야기할 뿐 만 아니라 이전에 세상에 대해 가져왔던 신뢰 자체를 부정해 버리도록 만들기 때문에 개인이 일상에서 느끼는 안녕감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개인이 인식하는 안녕감이란, 외적으로 요구되는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Ryff, & Keyes, 1995; Nash, & Litz, 2013).

충격적 사건 경험으로 인한 기본 신념체계의 변화가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두 가지 경로로 이해 될 수 있다. 한 가지는 자신이 믿어왔던 기존의 신념체계를 변화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 자체가 안녕감을 낮춘다는 것이다. 재난과 같은 극단적인 사회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이들 역시 자신, 타인, 세상과 관련된 이러한 세 가지 영역에서의 가설이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Janoff-Bulman & Frieze, 1983).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인지체계 안정성을 필요로 하는 만큼(Epstein, 1985), 기본 신념이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일은 그 개인에게 상당히 위협이 되며, 심리적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Horowitz, 1975; Janoff-Bulman, 1992). 이는 재난의 간접 경험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들 역시 사건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을 보다 위협적이고 위험하며, 안정적이지 않게 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됨으로써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경험할 수 있다(Pyevich, Newman, & Daleiden, 2003; Sprang, 1999; Solomon, Iancu, & Tyano, 1997). 두 번째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신념체계가 재구성됨으로서 사건에 대한 개인의 대응역량을 감소시켜 안녕감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세상이 우연의 원칙에 따라 돌아간다고 믿는 사람들은 미래의 부정적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며, 충격적인 사건에 직면했을 때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는 효능감이 낮기 때문에 안녕감 역시 저해되기 쉽다. 이는 신념체계의 기능 중 하나가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가져야 하는지를 안내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효능감을 유지하고, 특정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Janoff-Bulman, 1989).

신념체계의 변화와 함께 일시적으로 안녕감이 저해되는 일은 일반적이며 정상적인 반응이다(Steinglass, & Gerrity, 1990; Benight, & Harper, 2002; Koopman, Classen, Cardeña, & Spiegel, 1995; Eriksson, & Lundin, 1996).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안녕감을 회복하기 어렵거나,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Magwaza(1999)의 연구에 따르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 사건으로 인해 세상을 무의미하고 무자비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가치 있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러한 신념의 변화가 사건 후 10-15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특히 변화된 기본 신념의 내용이 “세상은 위험한 곳이다” 혹은 “나는 재앙을 일으키는 존재이다”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거나 “만약 그랬다면”(what if)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형성된다면, 그 개인은 만성적으로 상당한 인지적 혼란과 불안, 불쾌감, 무망감 등을 경험할 수 있다(Ehlers, & Clark, 2000; Brown, & Westaway, 2011). 사건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나 반응

이 경감되었다 할지라도, 신념체계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즉, 부정적으로 변화된 신념이 개인의 심리적 삶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강력하고 장기적이다(Magwaza, 1999; Foa, Ehlers, Clark, Tolin, & Orsillo, 1999; Beck & Dozois 2011).

그렇다면, 재난으로 인한 신념체계의 변화와 그로 인한 안녕감 저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안녕감을 회복하는 일이 개인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재난 이후 사회적 회복을 가능케 하는 힘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념체계와 안녕감 간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안녕감을 매개하는 요인들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낙관주의, 자존감과 같은 개인차원의 요인에 관심을 두어왔던 반면(Mäkikangas, & Kinnunen, 2003; Scheier, & Carver, 1992; Brown, & Ryan, 2003), 최근에는 개인을 둘러싼 맥락 요인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Andrews, & Withey, 2012; Helliwell, & Putnam, 2004; Kawachi, & Berkman, 2001; 이주일, 2004). 안녕감에 대해 평가하는 그 개인은 사회적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안녕감은 개인의 역량 뿐 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문화적 가치와 기대와 같은 개인과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이다(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Boyden, 2003; Brown, & Westaway, 2011).

다양한 맥락 요인들 중에서도 최근 많은 재난 연구들은 집단 역량(community capacity)에 주목하고 있다(Brown, & Westaway, 2011; Cutter, Barnes, Berry, Burton, Evans, Tate, & Webb, 2008; Helliwell, & Putnam, 2004; Kaniasty, & Norris, 2004; Norris, Stevens, Pfefferbaum, Wyche, Pfefferbaum, 2008). 집단 역량은 집단 회복력(community resilience), 지역(사회) 회복력(regional resilience) 등의 용어와 유사하며, 이들 모두 사회 집단 혹은 공동사회가 사회적, 정치적, 생태학적

변화로부터 기인하는 외부 충격과 위협을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Walker, Holling, Carpenter, & Kinzig, 2004). 개인이 재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위협을 평가하는지, 대응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그가 속한 집단의 역량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어떤 부분을 신뢰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난 상황에서 자신이 속한 지역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물적 자원이나 서비스와 같은 물리적 역량과 인적 자원, 신뢰 등과 같은 질적 역량이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서 자신이 얼마나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가 변하기 때문이다. 즉, 집단역량에 대한 인식은 스스로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인 사적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Bandura, 1997, 2001).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집단역량은 사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안녕감을 높일 뿐 만 아니라,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사회자본의 하위 개념으로서 집단역량의 기능을 검토해왔던 기존 연구들은 개인의 행복, 삶의 만족과 같은 안녕감을 독립적으로 예측한다고 보고해왔다(Helliwell, & Putnam, 2004). 본 연구 역시 재난 이후 저해되었던 안녕감을 회복하는 과정 역시 집단 역량 인식이 관여할 것으로 보고, 집단 역량에 대한 인식이 어떤 기제로 안녕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재난의 간접경험자들인 일반 시민들 중에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신념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한 이들을 대상으로 참사로 인해 영향을 받은 신념의 내용, 즉 ‘세상에 대한 무의미성’과 ‘비우호성’,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이 장기적으로 안녕감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집단역량 인식’이 매개하는지, 특히 장기적으로 신념이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유의하게 매개하고 있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1차시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

과 비우호성,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 수준이 1차 시와 2차 시 집단역량 인식을 통해 2차 시의 안녕감에 미치는 경로를 포함한 종단적 매개 모형을 구성하였다. 더불어 집단역량 인식의 종단적 매개효과가 과거외상경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다집단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과거외상경험 여부를 고려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외상 경험이 세상에 대한 인간의 기본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과거 외상경험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세상에 대한 우호성, 의미감,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 낮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이다(Boelen, Kip, Voorsluijs, & Bout, 2004; Janoff-Bulman, 1989, 1992; Young, Klosko, & Weishaar, 2003). 더욱이 신념체계는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지, 타인에 세상에 대해 어떤 기대와 예측을 하면 좋을지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Parkes, 1971; Fiske & Taylor, 1984; Taylor & Crocker, 1981; Janoff-Bulman, 1989 재인용), 새로운 신념체계로 변화하기보다 기존의 신념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편향을 사용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Piaget, 1971; Janoff-Bulman, 1989 재인용). 때문에 과거 외상경험을 했던 이가 새로운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될 때, 과거외상경험이 두드러지게 강조된 신념체계를 지지하는 단서들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선택적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과거의 외상경험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신념체계를 수정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외상경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여 신념체계와 안녕감 관계에서 집단역량 인식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Graesser & Nakamura, 1982; Janoff-Bulman, 1989; Harris & Valentiner, 2002 재인용).

본 연구를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 개개인의 저해된 안녕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제를 밝히고, 안전하고 신뢰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시민적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집단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재난으로 인해 야기된 신념의 변화와 그로 인해 저해된 안녕감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지지하고, 이를 국내 재난심리지원 개입에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자료수집 절차

데이터 수집기관을 통해 전국에서 20대- 60대를 대상으로 21개월의 간격을 두고 총 2회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실시하기 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였고,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 설문지 이루어졌다. 또한 특정대상에 편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령별, 성별, 지역별 할당을 적용하였다. 1차 수집은 2014년 12월에 이루어졌으며 총 1156명의 자료가 수집되었고, 2차 수집은 2016년 9월에 이루어졌으며, 485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는 1차와 2차 설문지 모두 응답한 이들 중에서 세월호 사건 생존자, 목격자, 가까운이가 생존했거나 희생되었다고 응답하거나 현장목격 및 현장직무수행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이들을 제외한 간접경험자 중에서도 ‘세월호 사건은 앞서한 (세상에 대한 신념척도) 응답에 영향을 미쳤다.’ 라는 문항에 대해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한 이들 307명의 데이터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현재의 신념수준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응답한 집단까지 포함한 데이터를 분석하게 된다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신념 체계의 변화, 신념 체계에 있어서 세월호 참사가 미친 영향력을 검토하고자 하는 본 연구 목표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307명 중 159명은 남성, 148명은 여성으로 성별 비율이 약 1:1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0.87세(SD=11.07)이었다. 그 외에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N (%)		
연령	20대	58(18.9)	30대	74(24.1)
	40대	84(27.4)	50대	91(29.6)
성별	남자	159(51.8)	여자	148(48.2)
결혼유무	미혼	113(36.8)	기혼	194(63.2)
학력	중졸이하	0	고졸	79(25.7)
	대졸	203(66.1)	대학원 이상	25(8.1)
거주지역	서울	44(14.3)	부산	21(6.8)
	대구	20(6.5)	인천	17(5.5)
	광주	10(3.3)	대전	12(3.9)
	울산	14(4.6)	경기도	68(22.1)
	강원도	8(2.6)	충청도	26(8.4)
	전라도	19(6.2)	경상도	44(14.3)
	제주도	4(1.3)	세종시	0(0)

분석 대상자의 결혼유무, 연령 분포, 지역 별 분포에 대한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세상에 대한 신념척도

세상에 대한 신념척도(World Assumptions Scale, WAS)는 Janoff-Bulman(1989)이 개발한 총32문항의 자기보고식 도구로 외상과 관련한 인지 도식의 변화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초기에는 외상사건을 직접 경험한 이들의 세계관을 평가하는 데 사용했지만, 대리외상의 개념이 Janoff-Bulman(1989)의 이론에 부분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외상의 간접 경험자들의 변화된 신념과 태도를 측정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영어의 이중 언어 구사자이면서 다년간트라우마 치료와 연구경험을 지닌 심리학 박사 2인에 의해 번안된 것을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세상에 대한 우호성’(benevolence of the world) 8문항, ‘세상에 대한 의미감’

(meaningfulness of the world) 12문항,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worthiness of the self) 12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간접 경험한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우호성과 세상에 대한 의미감 두 가지 하위척도만을 사용하였다(Elklit, Shevlin, Solomon & Dekel, 2007; Schwartzberg & Janoff-Bulman, 1991). 구체적으로 세상에 대한 우호성은 ‘세상에 대한 우호성’(예. 세상은 좋은 곳이다) 4문항과 ‘타인에 대한 우호성’(예.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착하고 이타적이다) 4문항으로, 세상에 대한 의미감은 ‘정의justice,’(예. 대체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4문항, ‘통제감controllability,’(예. 사람들이 예방하고자 애쓴다면 대부분의 불행은 피할 수 있다) 4문항, ‘우연성randomness,’(예. 우리 인생의 행로는 대부분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 4문항으로,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 ‘자기 가치(self-worth)’(예.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다.) 4문항, ‘자기-통제감(self-controllability)’ (예. 나는 나에게 좋은

결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편이다.) 4문항, ‘운(Luck)’(예. 생각해보면 나는 매우 운이 좋은 것 같다.) 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WAS는 6점 Likert 척도(1=‘매우 그렇다’, 6=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므로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세상이 비우호적이고 무의미하다고 믿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상에 대한 의미감’ 하위요인을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 ‘세상에 대한 우호성’ 하위요인을 ‘세상에 대한 비우호성’, ‘자기에 대한 가치감’ 하위요인을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으로 바꾸어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세상에 대한 비우호성’ .768,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 .771,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 .849로 나타났다.

집단역량 인식

본 연구에서 집단역량 인식 변인은 Leykin, Lahad, Cohen, Goldberg와 Aharonson-Daniel(2013)이 개발한 CCRAM(Conjoint community resiliency assessment measure)을 사용하였다. 이는 평가자가 가지고 있는 집단역량 인식(resilience)에 대한 인식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척도로서 본 연구진들이 문항을 번안하고 이중 언어 사용자에게 감수를 받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다섯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1) 리더십(Leadership) 6문항 (예. “우리 지역장은 재난 발생 시 지역의 일상의 업무로부터 위기관리 체계로 전환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2) 집단 효능(collective efficacy) 5문항 (예. “우리 지역에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3) 준비도(preparedness) 4문항 (예.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4) 거주지에 대한 애착(Place attachment) 4문항 (예. “나는 우리 지역에 소속감을 느낀다.”), 5) 사회적 신뢰(Social trust) 2문항 (예. “우리 지역 사람들은 서로 믿을 수 있다.”)

이다. 총 21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1-동의하지 않는다, 5-매우 강하게 동의한다) 척도로 역채점 문항은 없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1차시 집단역량 인식 .959, 2차시 집단역량 인식 .955으로 양호하였다.

안녕감(Well-being)

안녕감을 평가하는 차원에 주관적이고 관계적 차원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최근의 연구흐름을 반영하여, 본 연구 역시 안녕감의 정의적 속성에 정서적, 심리적 안녕감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안녕감을 포괄하고자 했다. 이에 정서, 사회 및 심리 안녕감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판 정신적 안녕감 척도(Mental Health Continuum Short Form: K-MHC-SF)를 사용하였다. Keyes, Wissing, Potgieter, Temane, Kruger와 van Rooy.(2008)이 개발하고 임영진, 고영진, 신희천, 조용래.(2012)가 타당화한 것으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된 6점 리커트(0점: 전혀 없음, 5점: 매일) 척도이다. 역채점 문항은 없으며, 이 척도의 하위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정서안녕감 3문항(예. “만족감을 느꼈다.”), 2) 사회안녕감 5문항 (예. “우리 사회가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3)심리안녕감 6문항(예. “나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자극을 주는 경험들을 했다고 느꼈다.”)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안녕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정서안녕감 .934, 사회안녕감 .865, 심리안녕감 .945, 전체 .954로 비교적 양호하였으며,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총점을 사용하여 안녕감 변인을 구성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18과 AMO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의 절차로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통해 연구 변인들의 정규성 및 관련성을 확인한 후, 연구모형

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차이검증과 함께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살펴보았다. CFI 와 TLI 지수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되고, RMSEA 지수는 .05 이하는 좋은 적합도, .08 이하면 보통 적합도,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라 할 수 있다(김주화, 김민규, 홍세희, 2009) 집단역량 인식의 종단적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는 Bootstrap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과거외상경험 유무에 따라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외상경험은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의 기준에 따라 사고, 재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성폭력, 신체적 폭력, 의미있는 사람의 죽음 등을 포함하며, 의미있는 사람과의 관계 단절, 소중한 물건 등의 상실과 같은 일상의 부정적인 생활사건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과거외상 유경험자들은 205명(66.78%), 무경험자는 102명(33.22%)으로

과거외상 유경험자가 더욱 많았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앞서 자료의 정상성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변인들의 왜도, 첨도, 평균 및 표준편차와 변인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urran, West, & Finch, 1996). 주요 변인들 간 상관 분석 결과, 1차시 세상에 대한 비우호성과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은 1, 2차시 집단역량 인식, 2차 안표 4. 연구 모형의 모수 추정치냉감 수준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즉, 1차시에 비우호적이고 무의미한 세상에 대한 믿음, 무가치한 자신에 대

표 2.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307명)

	1	2	3	4	5	6	7	8	9
1 .1차시 세상에 대한 비우호성	1								
2. 1차시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	.361**	1							
3. 1차시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	.515**	.507**	1						
4. 1차시 집단역량 인식	-.284**	-.283**	-.317**	1					
5. 2차시 집단역량 인식	-.211**	-.140**	-.188**	.563**	1				
6. 2차시 정서안녕감	-.217**	-.016	-.412**	.146*	.2686*	1			
7. 2차시 사회안녕감	-.264**	-.068	-.282**	.242**	.355**	.673**	1		
8. 2차시 심리안녕감	-.303**	-.091	-.416**	.229**	.330**	.704**	.771**	1	
9. 2차시 안녕감	-.298**	-.074	-.404**	.238**	.362**	.831**	.913**	.950**	1
M	3.35	3.63	3.43	2.55	2.60	2.20	1.74	2.08	1.98
SD	0.71	0.61	0.61	.64	.63	1.05	1.03	1.09	.97
왜도	.081	.711	-.045	-.295	-.209	.077	.349	.055	.175
첨도	.393	2.220	.427	.254	.148	-.478	-.385	-.514	-.370

* $p < .05$ ** $p < .01$

한 믿음이 강렬했을수록 1,2차시 집단역량 인식, 2차시 안녕감 수준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 2차시 집단역량 인식과 2차시 안녕감 수준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즉, 1, 2차시 집단역량 인식에 대한 인식이 높았을수록 2차시 안녕감 수준도 높았다는 것이다(표 2).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모형과

자료간의 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적합도 지수 외에 TLI, CFI, RMSEA를 적합도 지수로 선정하였다. 측정 변인 모두 정규 분포 가정을 만족하였으므로 이후 구조모형 검증에서도 모수 추정을 위해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1차시 세상에 대한 비우호성과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 연구모형 모두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연구모형 검증 결과, 1차시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의 경우, 1차시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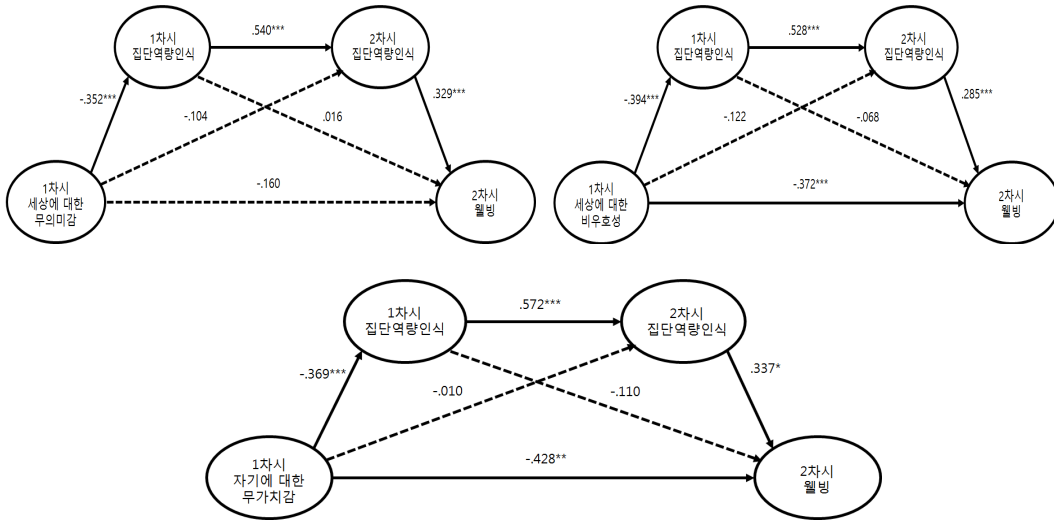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N=307)

독립변인	$\chi^2(df)$	TLI	CFI	RMSEA
1차시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	218.814(94)	.961	.969	.066
1차시 세상에 대한 비우호성	167.870(80)	.971	.978	.060
1차시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	224.115(94)	.959	.968	.067

표 4. 연구 모형의 모수 추정치

경로	B	S.E	β
1차시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 → 1차시 집단역량 인식	-.385***	.072	-.352
1차시 집단역량 인식 → 2차시 집단역량 인식	.514***	.055	.540
1차시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 → 2차시 집단역량 인식	-.104	.066	-.100
1차시 집단역량 인식 → 2차시 안녕감	.016	.095	.013
1차시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 → 2차시 안녕감	-.160	.098	-.114
2차시 집단역량 인식 → 2차시 안녕감	.441***	.100	.329
1차시 세상에 대한 비우호성 → 1차시 집단역량 인식	-.597***	.119	-.394
1차시 집단역량 인식 → 2차시 집단역량 인식	.502***	.058	.528
1차시 세상에 대한 비우호성 → 2차시 집단역량 인식	-.176	.099	-.122
1차시 집단역량 인식 → 2차시 안녕감	-.087	.094	-.068
1차시 세상에 대한 비우호성 → 2차시 안녕감	-.720***	.166	-.372
2차시 집단역량 인식 → 2차시 안녕감	.382***	.099	.285
1차시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 → 1차시 집단역량 인식	-1.219***	.304	-.369
1차시 집단역량 인식 → 2차시 집단역량 인식	.544***	.056	.572
1차시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 → 2차시 집단역량 인식	-.030	.186	-.010
1차시 집단역량 인식 → 2차시 안녕감	-.142	.094	-.110
1차시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 → 2차시 안녕감	-1.823***	.431	-.428
2차시 집단역량 인식 → 2차시 안녕감	.457***	.095	.337

*p<.05, **p<.01, ***p<.001



** $p < .01$, *** $p < .001$, 그림에 제시된 계수들은 표준화된 경로계수임

그림 1. 집단역량 인식의 종단적 매개효과 모형의 경로계수

차시 안녕감으로 가는 직접경로, 1차시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이 2차시 집단역량 인식으로 가는 경로, 1차시 집단역량 인식이 2차시 안녕감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하고, 신념이 1차 집단역량 인식으로 가는 경로($\beta = -.42$, $p < .001$), 1차시 집단역량 인식이 2차시 집단역량 인식으로 가는 경로($\beta = .58$, $p < .001$), 2차시 집단역량 인식이 2차시 안녕감으로 가는 경로($\beta = .46$, $p < .001$)가 유의했다(표 4).

1차시 세상에 대한 비우호성의 경우, 1차시 세상에 대한 비우호성이 2차시 집단역량 인식으로 가는 경로, 1차시 집단역량 인식이 2차시 안녕감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하고, 1차시 세상에 대한 비우호성이 2차시 안녕감으로 가는 직접경로($\beta = -.27$, $p < .001$), 1차시 세상에 대한 비우호성이 1차 집단역량 인식으로 가는 경로($\beta = -.35$, $p < .001$), 1차시 집단역량 인식이 2차시 집단역량 인식으로 가는 경로($\beta = .59$, $p < .001$), 2차시 집단역량 인식이 2차시 안녕감으로 가는 경로($\beta = .33$, $p < .001$)가 유의했다(표 4).

마지막으로, 1차시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의

경우, 1차시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이 2차시 집단역량 인식으로 가는 경로, 1차시 집단역량 인식이 2차시 안녕감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하고, 1차시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이 2차시 안녕감으로 가는 직접경로($\beta = -.43$, $p < .001$), 1차시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이 1차 집단역량 인식으로 가는 경로($\beta = -.37$, $p < .001$), 1차시 집단역량 인식이 2차시 집단역량 인식으로 가는 경로($\beta = .57$, $p < .001$), 2차시 집단역량 인식이 2차시 안녕감으로 가는 경로($\beta = .34$, $p < .001$)가 유의했다(표 4).

매개효과 검증

최종 모형에서 변수들 간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팬텀변수를 활용하여 부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1차시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 모형을 검증한 결과, 1차시와 2차시 집단역량 인식을 통해 2차시 안녕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087$ 로 유의하였으며, 1차시 세상에 대한 비우호성 모형의 경우 간접효과는 $-.115$, 1차시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

표 5. 연구 모형의 간접효과

독립	경로				간접효과		
	매개		종속				
1차시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	→	1차시 집단역량 인식	→	2차시 집단역량 인식	→	2차시 안녕감	-.087**
1차시 세상에 대한 비우호성	→	1차시 집단역량 인식	→	2차시 집단역량 인식	→	2차시 안녕감	-.115**
1차시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	→	1차시 집단역량 인식	→	2차시 집단역량 인식	→	2차시 안녕감	-.303**

* $p < .05$, ** $p < .01$, *** $p < .001$. Bootstrap: 1000 samples, 90% 신뢰구간

모형의 경우는 -.303으로 유의하였다. (표 5). 즉, 집단역량에 대한 인식 변인의 종단적 매개효과는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 세상에 대한 비우호성, 무의미감 모형 순서로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외상경험유무에 따른 다집단 분석

자료의 정상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집단 별로 측정변인의 왜도와 첨도,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변인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urran, West, & Finch, 1996). 평균과 표준편차는 과거 외상경험 유집단에서 1.76~3.69(SD=.62~1.15), 외상경험 무집단에서 1.63~3.78(SD=.66~1.05)의 범위를 보였다. 이후 t검정을 통해 과거 외상경험유무에 따라 주요 변인들의 평균값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없었다(표 6).

주요 변인 간 상관 분석 결과, 과거외상 유집단에서는 1차시 세상에 대한 비우호성과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은 1, 2차시 집단역량 인식, 2차

표 6. 과거외상경험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 검증

	과거외상 경험				t	Sig.
	유집단(N=205)		무집단(N=102)			
	평균	SD	평균	SD		
1. 1차시 세상에 대한 비우호성	3.38	0.69	3.44	0.72	-.575	.566
2. 1차시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	3.69	0.62	3.78	0.68	-.681	.496
3. 1차시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	3.44	0.59	3.41	0.65	.348	.728
4. 1차시 집단역량 인식	2.50	0.64	2.42	0.70	.541	.589
5. 2차시 집단역량 인식	2.58	0.62	2.50	0.66	.621	.535
6. 2차시 정서안녕감	2.23	1.09	2.21	1.00	.134	.893
7. 2차시 사회안녕감	1.76	1.06	1.63	0.96	.888	.375
8. 2차시 심리안녕감	2.08	1.15	2.12	1.05	-.462	.644
9. 2차시 안녕감	2.00	1.01	1.96	0.92	.139	.890

표 7. 과거외상경험유무집단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대각선 아래 과거외상 유경험(N=205), 대각선 위 무경험(N=102)

	1	2	3	4	5	6	7	8	9	왜도	첨도
1. 1차시 세상에 대한 비우호성		.40**	.46**	-.21*	-.10	-.27**	-.24*	-.33**	-.31**	.324	-.264
2. 1차시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	.46**		.58**	-.41**	-.19	.04	.00	-.15	-.06	1.235	2.717
3. 1차시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	.55**	.47**		-.38**	-.20**	-.41**	-.24**	-.33**	-.31**	.145	.798
4. 1차시 집단역량 인식	-.36**	-.18**	-.28**		.51**	.07	.17	.26**	.21*	-.340	-.253
5. 2차시 집단역량 인식	-.36**	-.13	-.18**	.59**		.22*	.34**	.35**	.35**	-.599	-.069
6. 2차시 정서안녕감	-.29**	-.04	-.42**	.15*	.29**		.69**	.74**	.85**	-.192	-.615
7. 2차시 사회안녕감	-.31**	-.06	-.31**	.22**	.33**	.68**		.77**	.91**	.115	-.949
8. 2차시 심리안녕감	-.35**	-.05	-.41**	.21**	.31**	.73**	.79**		.95**	-.213	-.749
9. 2차시 안녕감	-.35**	-.06	-.41**	.22**	.34**	.84**	.92**	.95**		-.162	-.734
왜도	.032	.350	-.160	-.446	-.029	.049	.386	.031	.213		
첨도	.273	1.851	.194	-.248	.173	-.580	-.366	-.629	-.431		

* $p < .05$ ** $p < .01$

안녕감 수준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1차시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의 경우, 1차시 집단역량 인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확인하지 못했다. 과거외상 무경험 집단의 경우, 1차시 세상에 대한 비우호성은 1차시 집단역량 인식, 2차 안녕감 수준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으며, 1차시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은 모든 변인들과 유의한 부적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과거외상 유경험 집단과 동일하게 무경험 집단에서도 1차시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의 경우, 1차시 집단역량 인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확인하지 못했다. 한편, 과거외상 유무경험 집단 모두에서 1,2차 집단역량 인식과 2차시 안녕감 수준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즉, 1,2차시 집단역량 인식에 대한 인식이 높았을수록 2차시 안녕감 수준도 높았다(표 7).

과거외상경험 유무에 따라 집단역량 인식의 종단적 매개 모형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

였다. 우선 각 집단의 요인구조 틀이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형태 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 모형과 세상에 대한 비우호성,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 모형 모두, 적합도는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chi^2=325.767$, TLI=.957, CFI=.966, RMSEA=.049; $\chi^2=254.479$, TLI=.969, CFI=.976, RMSEA=.044; $\chi^2=354.049$, TLI=.949, CFI=.960, RMSEA=.054). 이후 측정동일성모형과 형태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두 모형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Delta\chi^2=29.911$, $\Delta df=12$; $\Delta\chi^2=16.383$, $\Delta df=11$; $\Delta\chi^2=15.666$, $\Delta df=12$). 또한 측정동일성 모형의 적합도지수 역시 형태동일성 모형 지수에 비해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이로써 두 집단에서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 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 모형과 비우호성,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 모형에 있어서 주요 변인들의 측정 동일성 가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이후 두 집단 간 경로계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

표 8. 과거외상경험유무에서 동등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과거외상 유경험 N= 205, 무경험 N=102)

독립변인		χ^2	df	TLI	CFI	RMSEA
1차시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	모형1: 형태동일성 제약	325.767	188	.957	.966	.049
	모형2: 측정동일성	355.678	200	.954	.962	.051
	모형 3: 경로동일성	359.455	206	.956	.963	.049
	최종모형	359.455	206	.956	.963	.049
1차시 세상에 대한 비우호성	모형1: 형태동일성 제약	254.479	160	.969	.976	.044
	모형2: 측정동일성	270.862	171	.969	.975	.044
	모형 3: 경로동일성	275.887	177	.970	.975	.043
	최종모형	275.887	177	.970	.975	.043
1차시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	모형1: 형태동일성 제약	354.049	188	.949	.960	.054
	모형2: 측정동일성	370.715	200	.951	.959	.053
	모형 3: 경로동일성	375.549	206	.952	.959	.052
	최종모형	375.549	206	.952	.959	.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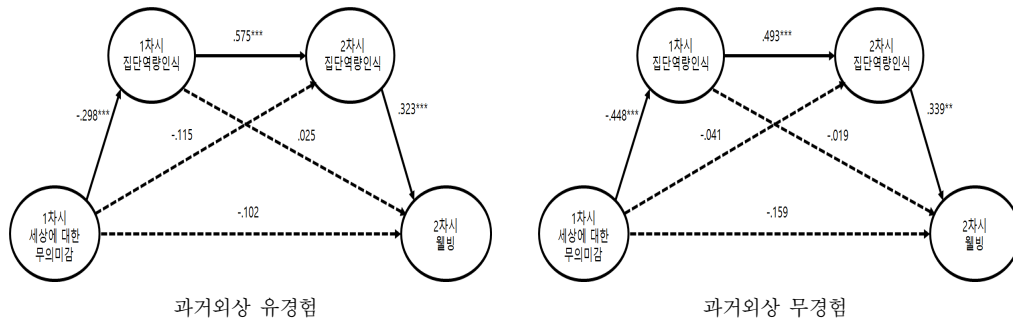


그림 2.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 모형에서 과거외상경험에 따른 집단역량 인식의 종단적 매개효과 (과거외상경험 유집단 N=205, 과거외상경험 무집단 N=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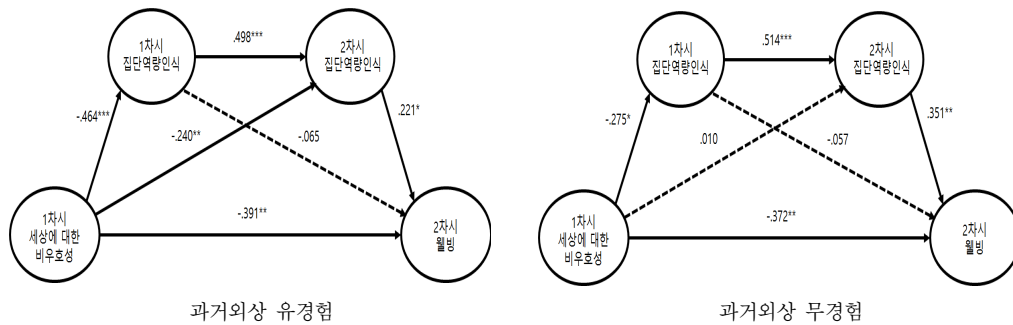


그림 3. 세상에 대한 비우호성 모형에서 과거외상경험에 따른 집단역량 인식의 종단적 매개효과(과거외상경험 유집단 N=205, 과거외상경험 무집단 N=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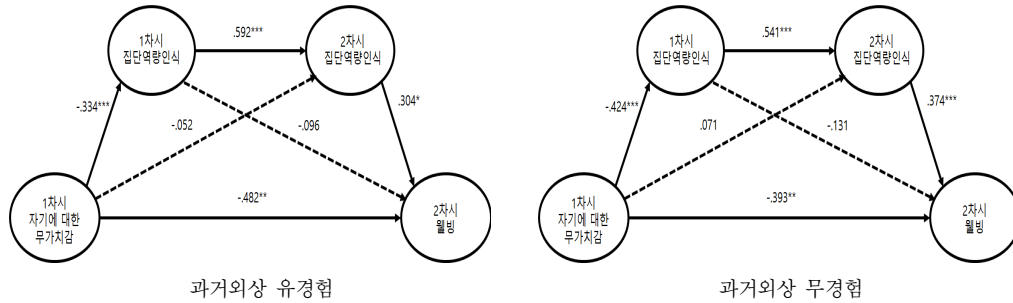


그림 4.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 모형에서 과거외상경험에 따른 집단역량 인식의 종단적 매개효과 (과거외상경험 유집단 N=205, 과거외상경험 무집단 N=102)

표 9. 기저모형과 집단 간 등가제약 모델 간의 집단 차이 비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로	Δdf	$\Delta\chi^2$	ΔTLI
1차시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1차시 집단역량 인식	1	2.104	.000
1차시 집단역량 인식→2차시 집단역량 인식	1	.591	.000
1차시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2차시 집단역량 인식	1	.210	.000
1차시 집단역량 인식→2차시 안녕감	1	.081	.000
1차시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2차시 안녕감	1	.109	.000
2차시 집단역량 인식→2차시 안녕감	1	.071	.000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6	3.777	-.002
1차시 세상에 대한 비우호성→1차시 집단역량 인식	1	1.523	.000
1차시 집단역량 인식→2차시 집단역량 인식	1	.003	.000
1차시 세상에 대한 비우호성 →2차시 집단역량 인식	1	3.007	.000
1차시 집단역량 인식→2차시 안녕감	1	.017	.000
1차시 세상에 대한 비우호성 →2차시 안녕감	1	.279	.000
2차시 집단역량 인식→2차시 안녕감	1	.305	.000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6	5.025	-.001
1차시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1차시 집단역량 인식	1	.244	.000
1차시 집단역량 인식→2차시 집단역량 인식	1	.283	.000
1차시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 →2차시 집단역량 인식	1	.890	.000
1차시 집단역량 인식→2차시 안녕감	1	.010	-.001
1차시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 →2차시 안녕감	1	1.855	.000
2차시 집단역량 인식→2차시 안녕감	1	.011	-.001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6	4.834	-.002

인하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경로계수 각각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로동일성 모델을 측정동일성 모델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경로동일성 모델과 측정동일성 모델에서 χ^2 와 df값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Delta\chi^2 = 3.777$, $\Delta df = 6$; $\Delta\chi^2 = 5.025$, $\Delta df = 6$; $\Delta\chi^2 = 4.834$, $\Delta df = 6$). 이후 각 경로별로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기저모형의 카이제곱 차이를 통해 집단별로 경로계수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모든 경로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9). 이에 최종 모형은 모든 경로에 제약을 가한 모형으로 확정되었고, 이 모형의 적합도는 표 8에 제시하였다.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과 비우호성,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 최종 모형의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는 그림 2,3,4에 제시하였으며, 각 경로의 값은 표 10에 제시하였다.

과거외상 여부에 따른 집단 비교 결과, 경로계수에 있어서 유의한 집단 차이를 보이는 모형은 1차시 세상에 대한 비우호성 모형이었으며, 이 모형에서 과거외상 유경험 집단은 1차시 세상에 대한 비우호성에서 2차시 집단역량인식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한 반면($\beta = -.240$, $p < .01$), 무경험 집단은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10$, (n.s.)(표 10).

표 10. 최종 모형에 대한 구조계수 추정치

모수	과거외상 유경험		과거외상 무경험	
	B(S.E)	β	B(S.E)	β
1차시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1차시 집단역량 인식	-.312(.084)***	-.298	-.537(.137)***	-.448
1차시 집단역량 인식→2차시 집단역량 인식	.552(.064)***	.575	.464(.100)***	.493
1차시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2차시 집단역량 인식	-.116(.071)	-.115	-.047(.135)	-.041
1차시 집단역량 인식→2차시 안녕감	.034(.125)	.025	-.021(.146)	-.019
1차시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2차시 안녕감	-.146(.119)	-.102	-.216(.176)	-.159
2차시 집단역량 인식→2차시 안녕감	.457(.133)***	.323	.406(.142)**	.339
1차시 세상에 대한 비우호성 → 1차시 집단역량 인식	-.662(.144)***	-.464	-.393(.181)*	-.275
1차시 집단역량 인식 → 2차시 집단역량 인식	.478(.073)***	.498	.485(.091)***	.514
1차시 세상에 대한 비우호성 → 2차시 집단역량 인식	-.330(.125)**	-.240	.013(.149)	.010
1차시 집단역량 인식 → 2차시 안녕감	-.088(.130)	-.065	-.064(.135)	-.057
1차시 세상에 대한 비우호성 → 2차시 안녕감	-.761(.238)**	-.391	-.603(.206)**	-.372
2차시 집단역량 인식→2차시 안녕감	.314(.140)*	.221	.421(.138)**	.351
1차시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1차시 집단역량 인식	-.630(.172)***	-.334	-.747(.207)***	-.424
1차시 집단역량 인식→2차시 집단역량 인식	.569(.066)***	.592	.509(.097)***	.541
1차시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 →2차시 집단역량 인식	-.093(.132)	-.052	.117(.179)	.071
1차시 집단역량 인식→2차시 안녕감	-.132(.123)	-.096	-.150(.144)	-.131
1차시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 →2차시 안녕감	-1.248(.263)***	-.482	-.791(.261)**	-.393
2차시 집단역량 인식→2차시 안녕감	.435(.125)***	.304	.454(.137)***	.374

* $p < .05$ ** $p < .01$ *** $p < .001$

표 11. 최종 모형의 간접효과

독립		경로		간접효과				
		매개		종속	과거외상 유	과거외상 무		
1차시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	→	1차시 집단역량 인식	→	2차시 집단역량 인식	→	2차시 안녕감	-.074**	-.117**
1차시 세상에 대한 비우호성	→	1차시 집단역량 인식	→	2차시 집단역량 인식	→	2차시 안녕감	-.090*	-.094*
1차시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	→	1차시 집단역량 인식	→	2차시 집단역량 인식	→	2차시 안녕감	-.147**	-.184**

* $p < .05$ ** $p < .01$

최종 모형에서 변수들 간 매개효과가 유의한 지 알아보기 위해 팬텀 변수를 활용하여 부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과거외상 경험 유·무 집단 모두에서 1차시와 2차시 집단역량 인식을 통한 종단적 매개효과가 유의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세 모형 모두 과거외상경험 무 집단에서 1차시와 2차시 집단역량 인식을 통한 간접효과가 더욱 컸지만, 간접효과는 크리 큰 차이가 없었다(표 11).

논 의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신념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건에 대한 신념이 장기적으로 개인의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 그 과정을 집단역량 인식 수준이 매개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종단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1차시에 세월호 참사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신념과 2차시 개인의 안녕감 간 관계를 1차시와 2차시 집단역량 인식 변인이 매개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1차시 신념이 장기적으로 2차시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1, 2차시 집단역량 인식

이 유의하게 매개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적합도 검증 및 경로계수 검토 결과, 1차시 세상에 대한 비우호성과 무의미성,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 모형 모두에서 신념 수준과 2차시 집단역량 인식 간 직접경로, 1차시 집단역량 인식과 2차시 안녕감 수준 간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1차시의 신념 수준은 1차시 집단역량 인식을 통해서만 2차시 집단역량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1차시 집단역량 인식은 반드시 2차시 집단역량 인식을 통해서 2차시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1차시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 모형의 경우, 1차시 무의미감과 2차시 안녕감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1, 2차시 집단역량 인식 변인이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1, 2차시 집단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의 간접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 반면, 1차시 세상에 대한 비우호성,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 모형의 경우, 1차시의 비우호성, 무가치감 수준이 2차시 안녕감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1,2차시 집단역량 인식 수준을 통한 간접경로 모두 유의했으며 간접효과가 보다 컸다. 정리하면, 세월호 참사로 인해 자신이 가진 신념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한 이들의 경우, 삶이 우연에 의해 결정되고, 불확실하며, 개인의 노력에 따라 불행을 막을 수도 있다고 믿는 것은 직접적으로 안녕감을 저해하지는 않았지만, 집단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을 통해 간접적으로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타인과 세상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신념을 가지는 것,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믿는 것, 예컨대 자신이 운이 나쁘고, 나쁜 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개인의 안녕감을 저해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가 위기 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장기적으로 안녕감을 저해하기도 했다. 더욱이 자기에 대한 가치감에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집단역량 인식을 통해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 역시 상당히 컸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세상에 대한 무의미함보다 비우호성,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이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과 집단역량 인식을 통한 간접영향력 모두 높았던 것일까. 이는 세상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사건 자체가 주는 충격과 관련된 신념 내용인 반면, 세상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믿음은 사건에 대해 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와 보다 관련된다는 점을 통해 이해해 볼 수 있다(Janoff-Bulman, & Frieze, 1983; Janoff-Bulman, 1989). 세월호 참사 이후 전개되었던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세월호 참사를 함께 겪어낸 일반 시민들에게는 사건 자체가 주는 충격보다 사건 이후 각종 유언비어와 루머,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일부 사람들이 보여준 악의적인 태도와 비난에 더욱 큰 좌절을 경험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은 적대적이고 매정하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무관심하고 상관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좋을 일보다 나쁜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며, 세상에는 악이 선보다 많다고 같이 타인과 세상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신념이 더욱 강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로써 집단역량에 대한 인식과 안녕감이 저해 되었으며, 그 악영향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더불어 1차시에 세월호 참사로 인해 자기에 대한 가치감에 손상을 많이 입을수록 집단역량 인식을

통해 2차시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상당히 컸는데, 이는 자신이 불운하며, 불운한 일에 대처할 능력 역시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사적 역량 혹은 자기 효능감을 감소시킴으로서 사적 역량의 집합이자 사적 역량을 이끌어내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집단역량에 대한 믿음 역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Bandura, 1997, 2001; Paton, & Johnston, 2006)

둘째, 과거외상경험 여부에 따라 집단역량 인식의 중단적 매개효과가 달라지는지 검토하기에 앞서, 중 변인들의 평균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집단 비교 분석 결과, 1차시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 비우호성, 1,2차시 집단역량 인식, 2차시 안녕감 모두에서 집단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집단 간 주요 변인들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연구 모형에서 집단 차이가 유의한지 검토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과거외상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경로는 없었으며, 집단역량 인식을 통한 간접효과의 경우, 과거외상 유집단보다는 무집단에서 그 크기가 더욱 크기는 했지만,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즉, 장기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신념 수준이 집단역량 인식을 통해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제는 과거 외상 경험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유의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재난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우연한 계기로 삶이 끝날 수밖에 없으므로 살고자 애쓰는 의미 없어지며, 나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것이지만 언제든 불운이 나에게도 찾아 올 수 있다는 불가항력과 불확실성을 자각하게 만드는 사건이다. 때문에 재난을 지켜본 우리 모두는 인생의 허무와 좌절에 직면한다. 즉, 재난은 세상이 무의미하다는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의 경우,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보다 비우호성에 대한 신념이 강화될 때 보다 장기적

으로 안녕감을 저해하고 있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전개되었던 갈등 상황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보상이 아닌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몇몇 시민들은 이들이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과 분열을 초래했다. 또한 참사를 기억함으로써 반성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기회로 삼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세월호 참사가 불경기의 원인이며, 계속 참사에 대해 기억하는 것이 피로하다는 부정적 반응도 있었다. 참사 이후의 이러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시민들은 재난의 본질적 속성인 예측 불허와 우연성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 뿐 만 아니라 유가족들에 대해 몇몇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부정적인 태도와 그로 인한 세상의 무자비함을 경험했던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이해해 보면, 재난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것이 결국 우리 개개인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즉 신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우리가 속한 사회가 위기에 대처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믿는 정도에 영향을 주며,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보다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재난 이후 사회 구성원들의 안녕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공감적이고 지지적인 반응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믿음을 강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과거의 외상경험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신념체계를 수정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외상경험여부를 준거로 집단역량 인식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과거 외상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세상에 대한 무의미감 및 비우호성 그리고 자기에 대한 무가치감의 세 가지 신념과 안녕감 간 관계를 집단역량 인식이 유의하게 종단적으로 매개하고 있었다. 이는 신념체계 변화로 인해 저해된 안녕감을 회복하기 위해 집단역량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 과거 외상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개입전략임을 의미한다.

셋째, 본 연구는 집단역량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 역시 재난 이후 사회적 회복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전략 중 하나임을 강조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를 마련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집단 역량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사람들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대해 더 큰 열망을 가지고 동기부여하게 되며, 그 사회가 직면하는 장애와 좌절에 견디는 힘,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과 사기가 더욱 높아지며, 그에 따라 실제 수행에 있어서 성취도도 높다(Bandura 2000; Bandura, 2001재인용). 또한 집단의 성공의 경험은 공유를 통해 개인의 신념체계를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집단역량 인식 또한 변화시킨다. 그리고 신념을 공유하거나 성공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더욱 잘 도울 수 있게 된다(Twig, 2001). 본 연구에서도 집단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떠한지가 장기적으로 부정적 신념이 안녕감을 저해하는 경로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재난 후에 집단역량 인식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지지하였다.

대형 재난 이후에 집단역량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안전하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일시적으로 증가된 긴장과 불안을 낮추고 진정(calming)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종교 활동, 지역사회 의 종교지도자(healer)들과의 협력, 공동체적 의례를 통한 애도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충격과 상실에 대응할 수 있는 집단 효능감을 높이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 간, 집단 간 연결감을 유지하도록 돕고 재난 이후에 균열된 세계관, 강화된 무망과 허무감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희망을 촉진하는 것도 긍정적인 집단역량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Norris, & Stevens, 2007; Norris, Stevens, Pfefferbaum, Wyche, Pfefferbaum, 2008).

넷째, 본 연구는 약 2년에 걸친 종단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로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신념 변화와 안녕감 간의 관계와 집단역량 인식의 매개효과를 시간 흐름 속에서 폭넓게 검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장기적으로 안녕감을 저해하는 데 유의한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이는 사건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나 반응이 경감되었다 할지라도, 신념체계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부정적으로 변화된 신념이 개인의 심리적 삶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강력하고 장기적일 수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을 지지한다(Magwaza, 1999; Foa et al., 1999; Beck & Dozois 2011). 또한 시간 흐름에도 불구하고 집단역량 인식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난으로 인해 강화된 부정적인 신념이 안녕감을 저해하는 과정을 막기 위해 집단역량 인식을 높이는 개입이 이른 시기에 이루어질수록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데이터 수집과 자기 보고식 설문이 가진 한계이다. 인터넷 접근성이나 활용력이 낮은 이들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그에 따라 타당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일반인들의 신념 체계에 세월호 참사가 미친 영향력을 검토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세월호로 인해 현재 신념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이들의 데이터만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그에 대한 해석을 대한민국 국민이란 모집단의 특성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본인의 신념 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분석해 봄으로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양한 신념들은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안녕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보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내었던 삶이 한 순간의 불행으로 인해 쉽게 무너질 수 있으며, 그 불행은 언제 다가올지 모른다고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정의롭고 타인은 선하며 언제든 도움과 지지를 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재난과 같은 불행을 경험한 이후에도 여전히 효능감을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러 신념들이 안녕감에 미치는 상호영향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추후 연구를 통해 재난 이후 세상에 대한 무의미함, 비우호성 등의 여러 신념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상호 보완함으로써 안녕감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지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보다 장기적으로 변인들 간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는 시도가 필요하다(Curran & Bollen, 2001; 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예를 들면, 잠재성장모형이나 자기회귀교차치연 모형을 적용하여 신념과 안녕감 혹은 신념과 집단역량에 대한 인식, 안녕감과 집단 역량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를 다면적으로 검증하고 보다 분명한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최소 3회 이상 데이터가 반복 측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2회에 걸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였던 본 연구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추가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주요 연구 변인들 간 관계를 시간 흐름에 따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1차시 연구 참가자 수가 1156명이었던 것에 비해 2차시 연구 참가자 수는 485명으로, 표본 유지율은 약 42%로 높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낮은 표본 유지율이 연구의 타당도를 저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본 유지율이 높지 않았던 이유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추가로 1차 연구에만 응답했던 집단과 2차 연구까지 응답했던 집단에 대하여 성별, 연령, 신념 체계에 있어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영향 정도, 본 연구의 주요 변인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비

교분석 하였다. 그 결과, 2차시까지 응답한 집단이 연령이 유의하게 높았던 것(1차시만 응답한 집단= 39.19세; 2차시까지 모두 응답한 집단= 41.22세) 외에 다른 변인들에서 집단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표본 유지를 보다 심도있게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의 관심 변인들 외에 다른 변인들에서 집단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들이 본 연구모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를 제안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적 위기 사건들은 간접 노출자들인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신념 체계 변화는 장기적으로 심리적 삶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더욱이 참사로 인해 변화된 신념체계가 자신이 속한 사회가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안녕감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도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 개개인의 저해된 안녕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제를 밝히고, 안전하고 신뢰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시민적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YTN. 세월호 참사 '집단 트라우마' 어떻게 막을까?. 2014.05.05.
- 중앙일보. [세월호 참사] '집단 우울증' 극복 어떻게... "일상 복귀 노력해야". 2014.04.30.
- 한겨레. 대형참사 트라우마로 가득찬 거대 병동, '한국호'. 2014.04.21.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 민지원, 주혜선, 안현의. (2016). 재난 자원봉사인력의 소진 양상에 따른 이차외상스트레스와 세상에 대한 신념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3), 363-385.
- 임영진, 고영진, 신희천, 조용래. (2012). 정신적 웰빙 척도 (MHC-SF)의 한국어판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369-386.
- 이주일. (2004). 노인의 대인애착 경향과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활동 및 지지적 관계 추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2), 11-29.
- Andrews, F. M., & Withey, S. B. (2012).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New York: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Bandura, A. (2001). Social cognitive theory: An agentic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1-26.
- Beck, A. T., & Dozois, D. J. (2011). Cognitive therapy: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Annual review of medicine*, 62, 397-409.
- Benight, C. C., & Harper, M. L. (2002). Coping self-efficacy perceptions as a mediator between acute stress response and long-term distress following natural disaster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5(3), 177-186.
- Boyden, J. (2003). Children under fire: challenging assumptions about children's resilience. *Children Youth and Environments*, 13(1), 1-29.
- Brown, K. W., & Ryan, R. M. (2003). The benefits of being present: mindfulness and its role i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4), 822.
- Brown, K., & Westaway, E. (2011). Agency, capacity, and resilience to environmental change: lessons from human development, well-being, and disasters. *Annual review of environment and resources*, 36, 321-342.
- Cohen, O., Leykin, D., Lahad, M., Goldberg, A., & Aharonson-Daniel, L. (2013). The conjoint community resiliency assessment measure as a baseline for profiling and predicting community

- resilience for emergencies.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80(9), 1732-1741.
- Cutter, S. L., Barnes, L., Berry, M., Burton, C., Evans, E., Tate, E., & Webb, J. (2008). A place-based model for understanding community resilience to natural disaster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18(4), 598-606.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
- Ehlers, A., & Clark, D.M. (2000). A cognitive model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8, 319-345.
- Eriksson, N. G., & Lundin, T. (1996). Early traumatic stress reactions among Swedish survivors of the m/s Estonia disaster.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9(6), 713-716.
- Fiske, S. T., & Taylor, S. E. (1984). *Social cognition*. Reading, MA: Addison-Wesley.
- Foa, E. B., Ehlers, A., Clark, D. M., Tolin, D. F., & Orsillo, S. M. (1999). The posttraumatic cognitions invento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assessment*, 11(3), 303.
- Graesser, A. C., & Nakamura, G. V. (1982). The impact of a schema on comprehension and memory. In G. H. Bower (Ed.), *The psychology of learning and motivation* (pp. 59-109). New York: Academic Press.
- Gutierrez, I. A., & Park, C. L. (2015). Emerging adulthood, evolving worldviews: How life events impact college students' developing belief systems. *Emerging Adulthood*, 3(2), 85-97.
- Harris, H. N., & Valentiner, D. P. (2002). World assumptions, sexual assault, depression, and fearful attitudes toward relationship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7(3), 286-305.
- Helliwell, J. F., & Putnam, R. D.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1435-1446.
- Janoff-Bulman, R., & Frieze, I.H. (1983). A theoretical perspective for understanding reactions to victimiz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39(2), 1-17.
- Janoff-Bulman, R. (1985). The aftermath of victimization: Rebuilding shattered assumptions. *Trauma and its wake*, 1, 15-35.
- Janoff-Bulman, R. (1989). Assumptive worlds and the stress of traumatic events: Applications of the schema construct. *Social Cognition*, 7, 113-136.
- Janoff-Bulman, R. (1992). *Shattered assumptions—towards a new psychology of trauma*. New York: The Free Press.
- Kaniasty, K., & Norris, F. H. (2004). Social support in the aftermath of disasters, catastrophes, and acts of terrorism: Altruistic, overwhelmed, uncertain, antagonistic, and patriotic communities. *Bioterrorism: Psychological and public health interventions*, 3, 200-229.
- Kawachi, I., & Berkman, L. F. (2001). Social ties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Urban health*, 78(3), 458-467.
- Keyes, C. L. M. (1998). Social well-be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1(2), 121-140.
- Keyes, C. L., Wissing, M., Potgieter, J. P., Temane, M., Kruger, A., & van Rooy, S. (2008). Evaluation of the mental health continuum-short form (MHC-SF) in Setswana-speaking South African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5(3), 181.
- Koopman, C., Classen, C., Cardeña, E., & Spiegel, D. (1995). When disaster strikes, acute stress disorder may follo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8(1), 29-46.
- Lamers, S., Westerhof, G. J., Bohlmeijer, E. T., ten Klooster, P. M., & Keyes, C. L. (2011). Evaluating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 mental health continuum short form (MHC SF).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7(1), 99-110.
- Leykin, D., Lahad, M., Cohen, O., Goldberg, A., & Aharonson-Daniel, L. (2013). Conjoint community resiliency assessment measure-28/10 items (CCRAM28 and CCRAM10): A self-report tool for assessing community resilien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2(3-4), 313-323.
- Magwaza, A.S. (1999). Assumptive world of traumatized South African adult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9(5), 622-630.
- Mikkelsen, E. G. E., & Einarsen, S. (2002). Basic assumptions and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among victims of bullying at work.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1(1), 87-111.
- Mäkikangas, A., & Kinnunen, U. (2003). Psychosocial work stressors and well-being: Self-esteem and optimism as moderators in a one-year longitudinal samp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3), 537-557.
- Nash, W. P., & Litz, B. T. (2013). Moral injury: A mechanism for war-related psychological trauma in military family member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6(4), 365-375.
- Norris, F. H., & Stevens, S. P. (2007). Community resilience and the principles of mass trauma intervention. *Psychiatry: Interpersonal and Biological Processes*, 70(4), 320-328.
- Norris F, Stevens S, Pfefferbaum B, Wyche K, Pfefferbaum R. (2008). Community resilience as a metaphor, theory, set of capacities, and strategy for disaster readines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1:127-50
- Park, C. L. (2010). Making sense of the meaning literature: An integrative review of meaning making and its effects on adjustment to stressful life events. *Psychological Bulletin*, 136, 257-301.
- Paton, D. & Johnston, D. (2006). *Disaster resilience: An integrated approach*.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Publisher.
- Piaget, J. (1971). *The construction of reality in the child*. New York: Basic Books.
- Pyeich, C. M., Newman, E., & Daleiden, E. (2003). The relationship among cognitive schemas, job related traumatic exposur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journalist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6(4), 325-328.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
- Scheier, M. F., & Carver, C. S. (1992).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2), 201-228.
- Sherrieb, K., Norris, F. H., & Galea, S. (2010). Measuring capacities for community resilien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99(2), 227-247.
- Solomon, Z., Iancu, I., & Tyano, S. (1997). World assumptions following disaste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7(20), 1785-1798.
- Sprang, G. (1999). Post-disaster stress following the Oklahoma City bombing: An examination of three community group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2), 169-183.
- Steinglass, P., & Gerrity, E. (1990). Natural Disasters an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Short Term versus Long Term Recovery in Two Disaster Affected Communiti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0(21), 1746-1765.
- Sumner A. 2010. Child poverty, well-being and agency: What does a '3-D well-being' approach contribute?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22:1064- 75.
- Taylor, S. E., & Crocker, J. (1981). Schematic bases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E. T.

- Higgins, C. P., Herman, & M. P. Zanna (Eds.), *Social cognition*. Hillsdale, NJ: Erlbaum.
- Taylor, S. E., Wood, J. V, & Lichtman, R. R. (1983). It could be worse: Selective evaluation as a response to victimiz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39(2), 19-40.
- Triplett, K. N., Tedeschi, R. G., Cann, A., Calhoun, L. G., & Reeve, C. L. (2012). Posttraumatic growth, meaning in life, and life satisfaction in response to trauma.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4, 400-410.
-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03).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New York: Guilford Press.
- Walker, B., Holling, C. S., Carpenter, S., & Kinzig, A. (2004). Resilience, adaptability and transformability in social-ecological systems. *Ecology and society*, 9(2).
- 1 차원고접수 : 2017. 06. 07.
수정원고접수 : 2017. 08. 22.
최종게재결정 : 2017. 08. 23.

The mediating effects of community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ld assumption and well being of the Sewol ferry disaster in the public: Longitudinal analysis

Nabin Lee

Heysun Joo

Hyunnie Ahn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community resilience is an important mediating fac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ld assumption and well being of the Sewol ferry disaster in general citizens. Particularly, in the long term, we tried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s of community resilience. To do this, we carried out two online surveys at 21month intervals for adults in 20s to 60s. A total of 1156 data were collected at the first time point, and a total of 485 data were collected at the second time point. In this study 307 respondents who reported that they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change in beliefs due to the Sewol ferry disaster were used, except for those directly related to the Sewol ferry disaster. As a result, in the case of the meaninglessness of world model, community resilience factor had a full mediation effect because the direct path of the primary meaninglessness of world and the secondary well being was not significant. In the case of the unbenevolence of world and unworthiness of the self model, community resilience factor had a partial mediation effect. In addition, a multiple group analysis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difference according to previous trauma. As a result, the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s of community resilience was significant in both group,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ath coefficients of study model between non-previous trauma and previous trauma group.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Sewol ferry disaster, the public, world assumption, community resilience, well being, longitudinal analysis, mediating effect